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2,1-11

[부속가] <성령송가>

[화답송] 시편104(103), 177과247, 294-30.31과 34(◎30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매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

[복음] 요한20, 19-23

[제 2독서] 1코린12,3-7.12-13

성가	8시 미사	입당 493	봉헌 219 215	성체 500 159	파견 143
	11시 미사	입당 493	봉헌 219 215	성체 500 159	파견 143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성령강림대축일(6월 8일)		삼위일체대축일(6월 15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6월 22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김사비노(영준)	이바로로(명국)	허라우렌시오(순구)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이골롬바(정연)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용서가 실현되는 나라

스페인 시민전쟁이 한창 막바지일 때 국군이 한 도시를 탈환하고 시찰 중 적군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사는 간절히 신부님을 뵙고 싶다고 청하더군요. 적군이기에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신부님을 모셔오고 고해성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적군 병사가 묻기를 “당신이 여기 주임 신부님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신 신부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고해성사를 마친 신부님께서서는 “이 병사를 빨리 안으로 들어 치료해주라” 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병사는 “신부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며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국군이 “신부님이니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말하자 이 적군 병사는 “사실은 제가 벌써 신부님을 서른두 분이나 죽였습니다. 마을을 점령할 때마다 성당을 뒤져 칼과 몽둥이와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 마을에 와서도 신부를 찾았으나 못 찾아 대신 그의 부모와 형제를 찾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 들으시고도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행실을 뉘우쳤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강조하신 말씀은 ‘용서’ 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 <용서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할 주체는 우리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떠나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과 진리’ 를 떠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을 떠나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매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창립일이요, 생일’ 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의 임하심을 정성스럽게 기도로 청해봅니다.

정성일 요한세례자 신부
인천교구 고강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오소서 성령이여

인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치킨집 할 아버지를 더 반기게 되고, 학창시절에 우정을 다짐하던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연애시절 뜨겁던 사랑도 식어버리고, 자식들은 제 짝 찾아 떠나고, 외로움에 지치자 온갖 집요한 병들이 친구하자고 조르고, 남은 것은 허무한 죽음뿐인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뜻밖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인생은 총만한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돌변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고목나무 같던 가슴에 푸른 잎이 돋고, 노란색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렇듯이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키고, 온전히 차지하고, 사랑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소란한 사람이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은 고독한 사람에게, 침묵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고독과 침묵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성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은 그저 말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힘든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휴식을 뜻합니다.

고독은 욕심 많고 거짓되며 분노에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신으로 변형되는 용광로입니다. 고독은 자신과 남을 향한 용서를 만들어 냅니다.

침묵은 고독의 조건입니다. 말 많고 말뿐인 세상에서 벗어나 말의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배웁니다.

기도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 얻은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내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평화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부디 우리도 고독한 사람이 됩시다. 침묵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으십시오.

미지근한 삶을 떨쳐 버립시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확고하고도 뜨거운 믿음으로 순교까지도 감수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살아갑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총만케 하시며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에페 4,23-24 참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

고찬근 신부
서울 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꿈꾸는 아들 이야기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질풍노도라는 사춘기도 아무 일 없이 지낸, 제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낼 때도 가는 녀석보다 보내는 어머니가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군인으로 있을 동안에는 군복 입은 군인들만 보면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아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대한 아들이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부모로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했지만, 자기 앞가림을 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앞두고 아들은 다단계에 빠져 대학을 그만두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면서 머릿속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르는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를 쳐다보시는 어머니의 싸늘한 태도가 얼마나 저를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왜 아들을 믿어 주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아! 저는 제 눈빛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이 무엇인지 하느님 앞에 우선 고백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주변에서 자식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를 보면 ‘부모가 뭔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빗나가지.’ 하며 은근히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커가는 게 다 ‘내 덕분, 내 능력’ 인줄 알았지,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 한다고는 털끝만큼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 아들이 다단계를 한다는 걸 알면 어떡하지?’ 하는 제 체면 때문에,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떠나보내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아들 녀석도 험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이를 악물고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기심 속에 갇혀 있을 때는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감의 끝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아이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저와 아들을 성장시켜주셨습니다. 3년의 방황 끝에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느님 만세!

윤미숙 베로니카
그림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



성화되어 성화하라!

글-모상의 성 비오 신부 / 그림-김윤경

민수기

성경산책

인구 조사는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民數記)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1, 1-10, 10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나이를 떠나는 준비를 위한 인구조사와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 10, 11-21, 35에서는 시나이를 떠나 모압 벌판에 이르는 내용이, 그리고 22, 1-25, 18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첫째 세대에 대한 축복과 심판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 19-26, 65에서는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세대, 즉 둘째 세대의 인구 조사입니다.

이어서 27, 1-36, 13에서는 땅과 여성들에 대한 규정들, 이집트로부터 모압 벌판까지의 여정에 대한 회고, 약속의 땅의 분배에 대한 원칙 등이 언급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볼 때에 민수기는 탈출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학적으로 본다면 민수기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을 위해 먼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도적-조직적으로 정비됩니다. 이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현하게 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미리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불평과 반역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면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가의 모압 벌판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결국 이집트를 탈출한 첫째 세대는 죽게 되고 다시 한 번 인구 조사를 통한 재정비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둘째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임명되고,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할 땅

의 분배를 위한 모세의 지침을 전하며 전체적 이야기의 흐름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선 레위기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 언급되었다면, 민수기는 그 ‘하느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지켜내는지에 대해 서술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집트탈출과 함께 탄생한) 이스라엘은 걸음마를 배우며 몇 번이고 넘어지는 아이처럼 (시나이에서 약속한) 충실함과 (레위기에서 요청된)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렇듯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맞서는 장소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축복과 보호를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느님에게 불평하고 때로는 반역을 저지르면서, ‘약속의 땅(=자유)’으로 나아가기보다 ‘이집트(=억압)’로 회귀하고자 하지만, 하느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계약에 충실한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에 지친, 그리고 자유를 향한 두려움에 빠진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최승정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날짜		지향	봉헌자
6월 8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원젬마
	연	조마오로(동완)	육아오스딩
	연	박데레사(병순)	권바실리오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가정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연	Mrs. Cole	샌리엔드로다락방
	연	정야고보/박젬마	전안드레아/데레사
	생	서데레사	하느님의뜻영성
	생	서데레사	본인
	생	신마태오	신유스티나
6월 10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조마오로(동완)	신빈첸시오
	연	Mrs. Cole	샌리엔드로다락방
6월 11일 수	생	이스텔라(재숙)	익명
	생	신마태오	박헬레나
6월 12일 목	연	이동순/손현성	정안드레아(일양)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2	165	-	247
헌금	\$620	\$703	-	\$1,323

< 교무금 > -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한재구 즈카리아/아네스 맥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6월 8일(오늘) : Catholic Communications

◆ 유아세례 안내

6월 14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사목회의 : 6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평협회의 : 6월 15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요아킴회/안나회 야유회

일시 : 6월 20일(금) 아침 8시 반 ~ 저녁 6시  
 장소 : Angel Island(오클랜드에서 선편으로 왕복)  
 집결지 : 아침 8시 20분 Jack London Sq. 유람선 선착장  
 회비 : \$10(회원 외 본당 교우 누구나 환영)  
 신청 : 6월 17일까지 요아킴회 총무/안나회 회장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서중부 남성 영어 꾸르실료 제11차 수강자 모집

기간 : 6월 26일(목) ~ 29일(일)  
 장소 : Holy Redeemer Retreat Center  
 접수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6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7-8장

|        |          |    |
|--------|----------|----|
| 7-2 구역 | 6월14일(토) | 야외 |
|--------|----------|----|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21:5)

강사 : 차동엽 로베르도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대건산악회 6월 정기 산행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집합시간/장소 : 오전 9시 반까지 성당 주차장

직접 오시는 분 : 10시까지 Redwood Regional Park 맨위 주차장

준비물 : 점심 및 물, 산행 필수품은 각자 지참

문의 : 510-847-3014

◆ 오늘 친교실에서 6구역 주관으로 도토리 국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6월 Hair Cut 봉사는 야외미사 관계로 둘째, 넷째

주일에 합니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6월 말까지 : \$285

- 그 이후 : \$300

\* 개강일 : 9월 6일